

보도시점 2024. 7. 21.(일) 11:00  
7. 22.(월) 조간

배포 2024. 7. 29.(금) 16:00

## 빈틈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위해 장마철에도 총력 대응

- 농식품부, 경북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12개 시·군 방역관리 실태  
현장점검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상북도 영천시(6.15.), 안동시(7.2.), 예천군(7.6) 양돈농장에서 3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지속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경상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12개 시·군\*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 울진, 영덕, 청송, 포항, 영천, 경주, 청도, 경산, 성주, 문경, 김천, 의성 / 기점검 및 미사육 등 시·군 제외

이번 점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대한 현장의 긴장감 유지 및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간부직원(과장, 서기관 등 6명)이 발생 위험이 큰 경상북도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면담하고, 해당 시·군 재난·환경·방역부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난관리,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및 양돈농장 방역관리 추진 상황에 대하여 점검한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 대응 조치사항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경북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검출되고 경남과 충남 등으로 남하·서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은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멧돼지 차단 조치, 소독 등 차단방역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담당자	사무관	박순성 (044-201-256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